

# 19세기 조선에서 유행한 콜레라에 대한 黃度淵의 의학적 대처

조원준, 이선아

한국한의학연구원

## Hwang Doyeon's medical coping with cholera in the 19C of the Joseon

Chough Wonjoon, Lee Sun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s the cholera was spread over the *Joseon* dynasty at 1821, *Hwang Doyeon* investigated the symptoms like diarrhea, vomiting, muscle cramp and so on, and he presented the cause of cholera as the damage of *Primordial-gi* caused by abnormal climate and Damp-heat made by taking inadequate foods. He regarded as of great importance the ordinary health condition by guessing the prognosis of the disease, and proposed how to make a diagnosis of dehydration by observing nails and toenails. To treat cholera, he presented the methods of *Sipseon-bloodletting* and *Singwol-moxacautery*, and mentioned compound herb remedies and single herbs like *garlic* etc. He wrote down *Mulberry* leaves and *Argyi* wormwood leaves as the preventor of cholera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on, and mentioned food contraindication in addition to keep from getting worse.

key words : *Hwang Doyeon*, cholera, *Primordial-gi*, Damp-heat

### I. 서론

182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이래로 수 차례의 대유행을 거치면서 많은 사망자를 내었다. 이러한 콜레라를 방역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근대 위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특히 黃度淵은 자신의 저서인 『醫宗損益』<sup>1)</sup>과 『方藥合編』<sup>2)</sup>에 ‘輪症’ 혹은 ‘輪症霍亂’이라는 병명으로 기재하여 콜레라 방역에 대처케 하였다.

이러한 콜레라의 유행에 대하여 신동원<sup>3)</sup>, 김정순<sup>4)</sup>,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sup>5)</sup> 등의 연구가 있고, 황도연에 대하여

김형태<sup>6)</sup>, 김종천<sup>7)</sup>, 이선아<sup>8)</sup>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연구는 주로 콜레라의 발생 및 정황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황도연과 방약합편의 체제에 관한 연구들로 황도연이 기술한 콜레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황도연의 저서인 『의종손익』과 『방약합편』을 중심으로 콜레라에 대한 그의 의학적 대처에

- 1) 황도연, 『의종손익』, 한국의학대계26권, 여강출판사, 1994.
- 2) 황도연, 『방약합편』, 한국의학대계27권, 여강출판사, 1994.
- 3)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학사학회지』, 1989;11(1).
- 4) 김정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콜레라유행의 특성」, 『한국역사학회지』, 1991;13(2).
- 5) 荒野泰典, 「콜레라가 전해진 길」, 『도서문화』, 2002;20.
- 6) 김형태, 윤창렬, 「방약합편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사의학회지』, 1991;5.
- 7) 김종천, 「황필수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994;10.
- 8) 이선아, 이시형, 「황도연의 방약합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11(1).

□ 접수 ▶ 2007년 2월 26일 수정 ▶ 2007년 4월 4일 채택 ▶ 2007년 4월 16일

□ 교신저자 ▶ 이선아,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3 Fax 042-863-9463 E-mail gnature@kiom.re.kr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콜레라의 발생

황도연은 『의종손익』에서 “道光 辛巳年(1821년)에 장마가 2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입추부터 暴病이 크게 발생하였다” 9)고 콜레라 발생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그 병명을 몰라 혹 怪疾이라 칭하거나 輪症이라고 칭하였다” 10)고 하여 처음 발생한 병에 대한 혼란도 기록하였다. 또 “그 후 극심한 무더위, 오랜 장마 등에 이 증이 빈발하였다” 11)고 하여 콜레라가 그 후로 누차 재유행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1821년에 처음 발생하였고, 당시에 장마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병원체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조성해주었으며, 그 후 자주 유행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2. 콜레라의 병인

황도연은 콜레라 발생 병인에 대하여 『의종손익』에서 이상기후의 조건과 아울러 “습열이 元氣를 손상시킨 때문이다” 12)라고 한의학적 병인관을 밝혔다.

『방약합편』에서는 병인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논급을 하고 있다. 즉, 첫째 이상기후에 의한 환경적 요인으로 “大風, 大寒, 大雨와 같은 三鬱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구토, 霍亂, 霍亂病을 앓게 된다” 13)고 하였고, “歲氣에 土가 不及” 14)하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풍風, 濕, 暘 : 서병의 세가지 기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15)고 하였다. 둘째 개인적인

요인으로 “혹은 찬 것을 마시거나 위가 차거나 제때 먹지 못하여 주리거나 大怒하거나 배나 수레를 탐으로 인하여 胃氣를 손상시키고 동요시켜서 발생한다” 16)고 하였다. 이러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종합하여 “內積과 外感이 있어서 陽은 不升하고 陰은 不降하여 乖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鬼邪의 소인이 아니다. 모두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 17)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서술은 콜레라의 특이적인 병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광란의 발생 원인들이다. 특히 이상기후나 運氣에 의한 설명은 돌림병 발생의 외적 조건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콜레라가 발생해야만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내적 요인에서도 찬 것을 마셔서 비위의 水濕 運化力을 저해하거나 위가 차져서 胃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음식부절로 비위 기능이 손상되는 등의 증상들은 설사 등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콜레라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 더우기 감정적인 요소인 성내거나 배와 수레 등을 탐으로 인해 멀미가 발생하여 위기가 상역되면 구토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것도 콜레라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다.

그러나 황도연이 행한 이러한 병인 분석은 콜레라라는 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증상을 유발시키는 병리가 무엇이나에 대한 한의학적인 추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콜레라의 주요 증상인 구토와 설사에 대하여 인체에서 이들 증상이 발생하는 병리상의 병인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적으로 비위의 虛寒과 積聚가 있는 상황에서 풍, 한, 습 등에 의한 외감이 결합하여 양기 不升으로 설사가 발생하고 음기 不降으로 구토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귀신의 소행이라는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고 최종적인 병인으로 음식에 의한 습열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 콜레라균이 인체에 침범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습열을 병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구토, 설사 및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론 그 치료법도 강구할 수 있게 하였다.

### 3. 콜레라의 증상

당시 유행한 콜레라의 독성에 대하여 황도연은 『의종손

9) 황도연, 『의종손익』, p.79.

道光 辛巳 一霖 四朔 自立秋後 暴病大熾

10) 상계서, p.79.

人無知其名者 或稱怪疾 或稱輪症

11) 상계서, p.79.

其後 極暑 久霖之餘 率多此症

12) 상계서, p.80.

此皆濕熱 損傷元氣之致也

13) 황도연, 『방약합편』, p.383.

三鬱(大風 大寒 大雨)之發 民病 嘔吐 霍亂 霍亂

14) 상계서, p.383.

歲土不及 霍亂 體重 腹痛 筋骨搖病

15) 상계서, p.383.

霍亂 由風濕暘(暘即暑病)三氣合成也

16) 상계서, p.383.

或因飲冷 或胃寒 或失飢 或大怒 或乘舟車 傷動胃氣 令人吐瀉併作

17) 상계서, p.383.

內有所積 外有所感 陽不升 陰不降 乖隔而成 非因鬼邪 皆飲食所致

익』에 “설사를 한두 차례하고 죽는 사람이 이어졌다” 18) 라고 하였으며, 초기의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만 하거나 구토만 하거나 구토와 轉筋을 겸하기도 한다” 19)20)고 하였다.

콜레라에 흔히 수반되는 이러한 증상은 소화기계 증상이 위주이므로 음식물에 의한 감염 및 습열이라는 병인 유추와 연관성이 깊다.

기타 부수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증상으로 수족냉, 번갈, 昏冒, 人事不省 등도 언급하고 있다.21)

#### 4. 콜레라의 예후

콜레라의 예후에 관하여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심신이 힘들어 지치고 허약한 사람이 먼저 병이 발생하며 치료되기도 힘들고,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병이 들더라도 낫기 쉽다” 22)고 하였다. 이것은 원기가 손상된 것이라는 병인과 연관성이 깊다.

황도연은 특히 맥진을 강조하였는데 “맥이 浮大하면서 洪한 경우는 구할 수 있지만 微弱하면서 遲한 경우는 구하기 힘들다” 23)고 하였다. 이러한 맥에 의한 예후 판정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연관하여 유의성이 매우 높다.

또한 望診에 의한 예후 판단을 강조하였는데, “한번 설사한 후 사지가 차며 맥이 끊어지고 손바닥에 주름이 잡히며 손발톱이 푸른 것은 脫陽으로 바로 죽고, 비록 구토, 설사를 하며 사지가 차더라도 맥이 끊어지지 않고 손발톱이 푸르지 않으면 대개 살 수 있다” 24)고 하였다. 손바닥의 주름과 손발톱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은 탈수와 관계가 깊다. 탈수는 진액이 모손된 것이므로 양기 또한 亡脫된 것이므로 예후가 좋지 못하다.

또 탈수와 관련하여 “갑자기 토하거나 설사하면 진액이 신속히 亡損되어 宗筋이 영양받지 못하므로 가벼운 경우에

는 양다리만 전근될 뿐이지만 중할 경우에는 전신이 전근된다” 25)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그가 탈수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감별 요점을 기재한 것으로 그만큼 진액 보존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콜레라의 예방

황도연은 콜레라의 예방법으로 “桑葉과 艾葉을 등분하여 물로 끓여 입의로 冷溫服하라” 26)고 하였다.

상엽은 水腫을 제거하고 대소장을 이롭게 하며 下氣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설사를 치료하는데 유용하다.27) 애엽은 복통과 赤白痢를 그치게 한다.28) 그러므로 상엽과 애엽으로 콜레라의 발병원인인 습을 제거하여 설사를 그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냉온복하라는 것은 습열 중에 열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냉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상엽이나 애엽과 같은 간단한 단방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鄉藥集成方』 이래로 수많은 경험방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辟瘟方』, 『辟疫神方』은 물론 『동의보감』과 같은 종합 의서에도 지속하여 기재함으로써 민간에서 쉽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나라 한의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 6. 콜레라의 치법

황도연이 제시한 콜레라의 치법은 크게 침구 치료법과 약물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침구 치료법은 침법과 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혼미하여 인사불성하면 열 손, 발가락 끝을 찌러 출혈시킨다” 29)라고 침법을 기재하였고, “전근이 복부까지 파급되며 수족이 냉하면 소금을 배꼽에 채우고 쪽으로 壯數에 상관없이 태우

18) 황도연, 『의중손익』, p.79.

泄瀉一二次 死者 相續

19) 상계서, pp.79-80.

有單泄者 或兼嘔吐 轉筋者

20) 황도연, 『방약합편』, p.383.

初症 單吐 單瀉 或吐瀉 并轉筋

21) 상계서, pp.383-384.

22) 황도연, 『의중손익』, p.80.

辛苦虛損之人 每先受而多不救 周密調養之人 雖病易愈

23) 황도연, 『방약합편』, p.383.

脉浮大而洪 可救 微弱而遲 難救

脉浮洪 可救 脉微遲而不語 氣少 則難差

24) 황도연, 『의중손익』, p.80.

大抵 此症 一瀉後 肢冷 脉絕 指紋皴 而爪甲青者 名脫陽 立死 雖有吐瀉

瀉 肢冷 而脉不絕 甲不青者 類可生矣

25) 황도연, 『방약합편』, p.383.

暴吐 暴瀉 津液驟亡 宗筋失其所養 故輕者 兩脚轉筋而已 重者 遍體轉筋

26) 상계서, p.383.

桑葉 艾葉 等分 水煎 冷溫任意服

27) 허준, 『동의보감』, 「탕액편 목부」.

桑葉 家桑葉 煖無毒. 除脚氣 水腫 利大小腸 下氣 除風痛

28) 상계서, 「탕액편 초부」.

艾葉 主久百病 主婦人崩漏 安胎 止腹痛 止赤白利 五藏痔瀉血 療下部 腫生肌肉 辟風寒 令人有子

29) 황도연, 『방약합편』, p.383.

昏冒 不省人事 刺十指頭 出血

는데 이렇게 하면 비록 이미 죽었다라도 흉중에 온기가 있는 자는 바로 소생한다”<sup>30)</sup>라고 구법을 기재하였다.

十宣穴 瀉血法은 예로부터 인사불성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이는 十二經의 井穴들로 구성된 십선혈을 사혈함으로써 오장육부를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배꼽에 소금을 채우고 뜸을 뜨는 것은 예로부터 關格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구급법은 약물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방법들은 또한 민간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고가의 약물 사용이 용이하지 못한 빈곤층들이 콜레라에 걸려 수수방관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황도연의 애민사상을 엿볼 수 있다.

약물치료법으로는 『의종손익』에서 “滯氣를 겸한 경우 回生散에 木瓜, 吳茱萸, 香薷, 白扁豆, 神麩, 檳榔, 枳實, 人參, 蘇葉과 같은 것들을 가하여 써라”<sup>31)</sup>고 하였다. 회생산은 藿香과 陳皮로 이루어진 처방이다. 황도연은 이 처방을 가감하여 사용하였는데 특히 인삼을 넣어 비록 일시에 치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기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人參養胃湯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32)</sup> 枳實, 枳殼는 신곡, 빈랑, 지실, 소엽과 더불어 利氣, 消滯시키고, 모과, 인삼은 진액을 보충하면서 원기를 보하며, 오수유는 厥冷을 치료하고, 향유, 백편두는 暑病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본 처방은 여름철에 체기와 아울러 설사로 진액이 부족하고, 손발이 찬 콜레라 치료에 유의성이 높다.

또한 “氣虛한 경우 白朮散에 인삼을 배로 하고 오수유, 향유, 백편두와 같은 것들을 가하여 써라”<sup>33)</sup>고 하였다. 백출산은 四君子湯에 乾葛, 木香, 枳實이 가해진 처방이다. 사군자탕은 비위의 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처방인데 인삼을 배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기를 보하고 진액을 보충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갈근은 위장관의 습열을 제거하고 목향, 枳實은 위장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 “번갈에 麥門冬, 黃連, 烏梅와 같은 것을 가하라”<sup>34)</sup>

고 하였다. 맥문동과 오매는 진액을 보충하여 갈증을 없애고 황련은 心火를 식히는 작용이 있어 화열로 인해 진액이 마르거나 갈증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또 “혹 附子理中湯과 같은 약을 임의로 가감하여 사용하라”<sup>35)</sup>고 하였다. 부자이중탕은 한기로 인하여 四肢厥冷이 심할 때 쓰는 처방이므로 비위가 허해지고 설사가 심하여 양기까지 亡脫될 경우 유의성이 높다.

『방약합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첫째, 黃連湯으로 “음양이 실조된 것을 치료하는데 구토, 설사에는 枳實, 枳殼 각 한돈을 가하고, 전근을 겸하면 모과, 오수유 각 한돈을 더 가하며, 기허에는 인삼을 3-5돈으로 늘리고, 회충에는 使君子, 오매, 花椒를 가하며, 여름에는 향유, 백편두 각 한돈을 가하라”<sup>36)</sup>고 하였다. 또한 “최토약은 반드시 서서히 한두 숟가락씩 마시는데 한두 첩을 다 복용하면 반드시 효과를 본다”<sup>37)</sup>라고 하여 조금씩 자주 마시도록 복용법도 아울러 기록하고 있다. 황련탕이 실조된 음양을 치료한다는 것은 황련이 熱을, 乾薑, 桂枝가 寒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삼과 半夏가 補氣하면서 枳實, 枳殼와 함께 痰을 제거하여 구토, 설사를 치료한다. 또한 모과가 진액을 보충하며 오수유가 한기를 제거하여 전근을 치료한다. 사군자, 오매, 화초를 사용하면 蛔厥을 치료할 수 있다.

둘째, 理中湯으로 “복통 自利를 치료하는데 토사로 위험하고 매우 허랭한 경우에는 부자포 두돈을 가하며, 열이 심할 경우에는 石膏 한냥을 가하고, 乾霍亂인 경우 또한 후 橘紅 한돈을 가하라”<sup>38)</sup>고 하였다. 이중탕에 부자를 가한 것은

34) 상계서, p.80.

煩渴 加麥門冬 黃連 烏梅之類

35) 상계서, p.80.

或附子理中湯之類 隨宜加減

36) 황도연, 『방약합편』, p.383.

黃連湯

黃連 二錢 人參 一錢半 半夏 一錢二分 乾薑 桂枝 各一錢 甘草 五分

薑 三片 棗 二枚

○治陰陽失常

○吐瀉 加藿香 陳皮 各一錢 兼轉筋 又加木瓜 吳茱萸 各一錢

○氣虛 倍參 三五錢

○虵 加使君子 烏梅 花椒

○暑 加香薷 白扁豆 各一錢

37) 상계서, pp.383-384.

凡吐藥 必徐徐呷一二匙 服盡一二貼 無不見效

38) 상계서, p.384.

理中湯

人參 白朮 乾薑炮 各二錢 甘草炙 一錢

○治腹痛自利

○吐瀉危 甚虛冷 加附子炮 一錢 熱甚 加石膏 一兩

○乾霍亂得吐後 加橘紅 一錢

30) 상계서, p.383.

轉筋入腹 手足冷 以塩填臍中 灼艾不計壯數 雖已死 而胸中有暖氣者 立甦

31) 황도연, 『의종손익』, p.80.

挾滯者 回生散 加木瓜 吳茱萸 香薷 白扁豆 神麩 檳榔 枳實 人參 蘇葉之類

32) 상계서, p.81

治法 雖不無一時活法 然此藥係用僅存胃氣者 卽每加人參一二錢 庶合乎古人人參養胃湯之本旨歟

33) 상계서, p.80.

氣虛者 白朮散 倍參 加吳茱萸 香薷 白扁豆之類

위의 부장이증탕을 사용한 의미이다. 또 열이 심할 경우 석고를 쓴 것은 진액이 망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건곽란의 경우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야 하므로 급히 토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체나 소금을 사용하여 토하게 한다. 그후 逆上된 기는 곁홍으로 理氣시켜 순조롭게 한다.

셋째, 胃風湯으로 “腸風, 濕瀉가 豆汁과 같은 경우를 치료하는데, 洞泄에 升麻, 防風을 가하라” 39)고 하였다. 위풍탕은 비위의 기능 실조로 수습이 정제된 것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그러므로 콜레라로 인해 수습을 운화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설사가 유발될 경우에는 이 처방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또한 이 경우 얼굴이 붉는 증상을 수반하므로 일반적으로 승마와 방풍을 같이 사용한다.

넷째, 白朮散으로 “吐瀉가 오래되어 진액이 마르고 답답하며 물을 마시는 것을 치료하는데, 氣脫에는 인삼을 3-5돈 늘리고, 설사가 심하면 山藥, 백편두, 肉豆蔻를 가하며, 구토에는 丁香, 화초를 가하라” 40)고 하였다. 백출산에 여러 약재를 가하여 補氣, 止瀉, 止嘔 작용을 증강시켰다.

다섯째, 麥門冬湯으로 “곽란 후 번갈을 치료한다” 41)고 하였다. 맥문동탕은 맥문동 자체의 진액보충 기능과 함께 二陳湯과 사군자탕이 가미되어 있어 비위의 기능이 떨어져 수습이 운화되지 못하고 담으로 정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증을 아울러 치료한다.

여섯째, 參胡三白湯으로 “곽란 후 번열, 口乾, 脈數하거나 頭身痛을 치료한다” 42)고 하였다. 삼백탕은 설사를 그치게 하는 처방인데 여기에 柴胡, 梔子 등으로 번열과 두신통

을 치료하고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으로 진액을 보충하여 갈증을 해소케 한다. 이 처방은 콜레라 치료 후 餘邪가 남아 후유증을 유발할 때 사용한다.

일곱째, 既濟湯으로 “곽란 후 虛煩으로 인한 불면을 치료한다” 43)고 하였다. 맥문동, 인삼, 竹葉 등은 진액을 보충하여 補陰하고, 부지는 補陽하며, 반하는 中焦의 담을 제거하여 상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므로 水火가 既濟되어 허번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平胃散으로 “위를 조화롭고 건강하게 하는데, 脇痛, 脈眩에 모과 다섯돈을 가하라” 44)고 하였다. 평위산은 食積을 제거하는 처방인데 식적으로 인해 비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乾, 濕霍亂을 치료한다. 이때 모과를 같이 사용하면 舒筋活絡시켜 협통을 치료하고 현맥을 정상화시킨다.

또한 위와 같은 복합방 뿐만 아니라 예방법에서도 같이 단방을 활용한 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첫째, “마늘을 찢어 양발 掌心에 붙이면 비록 혼미하고 위급하더라도 또한 효과가 있다” 45)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마늘을 이용한 방법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데, 장심의 湧泉穴이 手少陰腎經의 起始穴이고 아침에 陽氣가 始生하는 곳이어서 이를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옷숨을 식초에 담갔다가 끓여 따듯할 때에 환처를 싸맸다가 식으면 바꾸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낫는다” 46)고 하였다. 식초를 이용한 방법은 복부에 온점질을 하여 비위의 기능을 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열이 극성할 때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번갈에는 산속의 암천수를 배가 부르도록 많이 마셔라(洗腸이라고 한다). 또한 粳米를 물에 갈아 즙을 취해 복용하라” 47)고 하였다. 갈증이 심할 경우 암천수를 마시는 것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다. 이 경우에

39) 상계서, p.384.

胃風湯

人參 白朮 赤茯苓 當歸 川芎 白芍藥 桂皮 甘草 各一錢 粟米 一撮

○治腸風濕瀉如豆汁

○洞泄 加升麻防風

40) 상계서, p.384.

白朮散

乾葛 二錢 人參 白朮 白茯苓 木香 藿香 甘草 各一錢

○治吐瀉日久 津枯 煩滿 引飲

○氣脫 倍參 三五錢

○泄甚 加山藥 白扁豆 肉豆久

○嘔 加丁香 花椒

41) 상계서, p.384.

麥門冬湯

麥門冬 二錢 陳皮 半夏 白朮 白茯苓 各一錢 小麥 半合 人參 甘草 各五分 薑 三片 梅 一枚

○治霍亂後 煩渴

42) 상계서, p.384.

參胡三白湯

柴胡 白朮 白茯苓 白芍藥 當歸 陳皮 麥門冬 梔子 甘草 各八分 人參 五分 五味子 十粒 棗 二枚 燈心 一團

○治霍亂後 煩熱 口乾 脈數 或頭身痛

43) 상계서, p.384.

既濟湯

麥門冬 二錢 人參 竹葉 半夏 附子炮 甘草炙 各一錢 薑 五片 粳米 百粒

○治霍亂後 虛煩不得眠

44) 상계서, p.384.

平胃散

蒼朮 二錢 陳皮 一錢四分 厚朴 一錢 甘草 六分 薑 三片 棗 二枚

○和胃 健胃

○脇痛 脈弦 加木瓜 五錢

45) 상계서, p.383.

大蒜塗兩腳掌心 雖昏危 亦效

46) 상계서, p.383.

衣架漬醋煮 令溫麥患處 冷則易 卽愈

47) 상계서, p.383.

煩渴 山岩泉水 多飲令飽(名洗腸) 又粳米 水研取汁服

도 비위의 운화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갱미죽은 영양과 진액을 보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토사를 한 후 배고픔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용시켜야 한다.

넷째, “反胃로 약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새로 길은 물과 끓인 물을 섞어 복용하라” 48)고 하였다. 냉온수를 섞어 복용하는 것은 음인 냉수와 양인 온수를 섞어 복용함으로써 깨진 음양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단방의 활용은 실용성과 경제성을 의학에 도입한 좋은 예이다.

## 7. 콜레라의 금기

황도연은 콜레라 환자의 금기사항으로 “토사를 할 때 일체 음식을 주어서는 안된다. 비록 미음 한모금일지라도 삼키자마자 죽는다” 49)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토사가 그치고 난 후 반일이 지나 배고픔이 심해지길 기다려 묽은 죽을 조금씩 먹일 수 있다” 50)고 하였다. 또한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은 금하면서도 “다만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무방하다” 51)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熱湯과 熱酒, 燒酒를 마시는 것은 불가하다” 52)고 하였다.

콜레라의 患憂 중에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을 1차적으로 음식물로 본 병인관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병리 기전이 습열에 의해 진행되므로 음식물이 약해진 비위에 들어가 정상 소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습열이 더 조장되는 상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뜨거운 물이나 술과 같은 것도 체내에 들어가 습열을 더욱 조장시키므로 금한 것으로 보인다. 얼음물은 비위에서 운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을 때에 한해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콜레라 치료시 중요한 진액 보충 문제를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것은 唐毒效(성홍열)에 허준이 臘雪水<sup>53)</sup>를 사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48) 상계서, p.383.

反胃不進藥食 新汲水 白沸湯 合一盞 和勻服

49) 황도연 원저, 최승학 역술, 『신정방약합편』, 1908:359.

吐瀉之時 切勿與穀食 雖米湯一呷下咽 立死

50) 상계서.

必待吐瀉止 過半日 飢甚 方可以稀粥 漸而將息

51) 상계서.

大忌飲食 入腹則死 只喫氷水 不妨

52) 상계서.

不可飲熱湯 及熱酒 燒酒

53) 허준, 『백역신방』.

臘雪水 治天行時氣 癘疫 熱盛 發狂 則臘月雪收貯成水者 取飲之

## III. 결 론

1821년에 조선으로 처음 전파된 콜레라에 대하여, 황도연은 콜레라의 주증상인 설사, 구토, 전근과 부증상인 수족냉, 번갈, 혼도, 인사불성 등을 의학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콜레라 발생의 병인병기에 대하여 이상기후와 부적절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조장된 습열에 의한 원기 손상을 제시하면서, 비위의 허함과 적취가 있는 상황에서 풍, 한, 습 등에 의한 외감이 결합하여 양기 불승으로 설사가 발생하고 음기 불강으로 구토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콜레라의 예후 판단에 있어서 평소 건강 상태를 중시하였으며, 원기와 관련하여 맥진을, 탈수와 관련하여 손바닥 및 손발톱 진단을 강조하여 치료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콜레라의 침구 치료법으로 십선사혈과 신궤구법을 제시하였고, 약물치료법으로 회생산, 백출산, 황련탕, 이중탕, 위풍탕, 맥문동탕, 삼호삼백탕, 기제탕, 평위산 등의 복합방과 마늘, 암천수 등의 단방법을 제시하여 콜레라에 대한 의학적 대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염과 애염을 이용한 예방법을 부기하여 병이 든 후 치료하기보다는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음식물 섭취에 대한 금기사항을 기재하여 주의토록 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병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 IV. 참고문헌

1. 황도연, 『의종손익』, 한국의학대계26권, 여강출판사, 1994.
2. 황도연, 『방약합편』, 한국의학대계27권, 여강출판사, 1994.
3.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1821-1910」, 『한국과 학사학회지』, 1989;11(1).
4. 김정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콜레라유행의 특성」, 『한국역사학회지』, 1991;13(2).
5. 荒野泰典, 「콜레라가 전해진 길」, 『도서문화』, 2002.
6. 김형태, 윤창렬, 「방약합편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1991;5.
7. 김중천, 「황필수와 그의 편간서들」, 『서지학연구』, 1994;10.
8. 이선아, 이시형, 「황도연의 방약합편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의학지』, 2001;11(1).
9. 허준, 『동의보감』.
10. 황도연 원저, 최승학 역술, 『신정방약합편』, 1908.
11. 허준, 『백역신방』.